



한벽당일원 | 명승 제107호

한벽당은 북구 충효동 광주호의 상류 증암천의 언덕 위에 높다랗게 자리하고 있으며, 1546년경 사촌(沙村) 김윤제(金允梯 1501~1572)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후학을 지도할 목적으로 자기집 후원에 세운 정자이다. 정자 주변의 수려한 경관은 한벽옹추(環壁龍秋), 쌍송조대(雙松釣臺), 벽오양월(壁鳥梁月) 등으로 표현되어 당시 문인들의 시제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사촌이 송강 정철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더 유명하다.

1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群) | 천연기념물 제539호

마을 주민의 구전 자료에 의하면 구신(畵新)바위가 마을 정면을 향해 있어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해 심었다고 전해진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비보림(裨補林)과 말무덤을 왕버들 앞에 만들고 구신바위 옆에는 그에 맞설 입석을 세워 지형적 결함을 보완했으며, 김덕령 장군을 기리고자 왕버들을 심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2



충효동정려비각 | 시기념물 제4호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김덕령 장군(金德齡, 1567~1596)과 그의 부인 흥양 이씨(興陽 李氏 ?~1597), 그의 형 김덕홍(金德弘 1558~1592), 그의 아우 김덕보(金德普 1571~1596) 등 일가족의 충효와 절개를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마을 앞에 세운 비석과 비각이다. 덕령 장군 일가의 충·열·효(忠·烈·孝)에 대한 칭찬의 글 뿐 아니라 '충효지리(忠孝之里)'라는 동네 이름까지 임금이 직접 지어 내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특이하다.

3



취가정 | 문화재 자료 제30호

취가정(醉歌亭)은 모함을 받아 죽임을 당한 충장공 김덕령(金德齡)장군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석주(石州) 권필(權弼 1569~1612)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노래를 부르자 시(詩)를 지어 원혼을 달랬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장군의 쌓인 한(恨)을 달래기 위해 난실(蘭室) 김만식(金晩植)을 비롯한 후손들이 고종 27년(1890)에 북구 충효동 광주호의 곁 산중턱에 세운 정자다.

4



광주충효동요지 | 사적 제41호

충효동 요지는 광주 무등산(無等山) 기슭에 있는 조선 초기의 관요지(官窠址)이다. 이곳은 무등산 북쪽 계곡에 넓게 펼쳐져 있는 가마터로 충장사에서 광주호로 가는 갈림길의 금곡마을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5

광주광역시 북구

가사문화역사지도

주최

문화재단

주관

한국문화재단이 단체연합회

북구문화원문화재단지킴이

※ 이 지도는 복권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4층 (충효동, 북구평생학습관)

TEL: 062) 527-7701 / FAX: 062) 527-7702

http://gjbukgu.or.kr • E-mail: moodri@hanmail.net



금곡동제철유적 | 시기념물 제21호

주검동이라 불리던 금곡동 제철유적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덕령(金德齡)장군과 관련된 무기 제조장의 자리이다. 이곳은 무등산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능선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의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6



풍암정 | 문화재자료 제15호

풍암정은 조선 인조 시대에 김덕령의 동생인 풍암(楓巖) 김덕보(金德普 1571~1627)가 이전에 있던 정자를 1602년(선조 35년)에 중수한 것으로 큰형인 김덕홍이 금산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제봉 고령명과 함께 전사하고, 작은형 김덕령 마저 누명을 쓰고 옥사하자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이곳 무등산의 수려한 원효계곡을 찾아 터를 잡고 도학과 경륜을 쌓으며 은둔 생활을 하였던 곳이다.

7



원효사 | 원효사동무도 | 사유형문화재 제7호

무등산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원효사는 신라 때 국사를 지냈던 원효대사가 이곳에 암자를 세우고 지냈다고 하여 원효암이라 이름지었다고 전해진다. 1980년 대웅전 신축 작업중 청동불임상 등 백여점의 유물이 나와 지금의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8



충장사

충장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지낸 충장공 김덕령(金德齡 1567~1596)장군의 위패(位牌)와 영정(影幀)을 모신 사당(祠堂), 제실(齋室), 유물관, 그리고 장군 묘역으로 이루어진 사우(祠宇)이다.

9



충민사

충민사(忠愍祠)는 정묘호란 때 청나라 침략군을 맞아 평안도 안주성 싸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장렬히 순국한 귀성 전상의(龜城 全尙毅 1575~1627)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황산벌싸움에서 전공을 세운 해광송제민선생의 제각인 운암서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10



무진고성지 | 시기념물 제14호

무진고성지는 무등산 북쪽 지맥인 장원봉(386m)을 중심으로 잣고개의 장대봉(350m)과 제4수원지 안쪽의 산 능선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통일신라말기에서 고려중기까지 사용된 성터로 추측되며 성터 규모는 남북길이 1,000여m, 동서 너비 500여m, 둘레 3,500m의 타원형으로 축조되어 있다.

11



경렬사 | 정지장군감옥 | 보물 제336호

경렬사는 고려말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운 용장 정지 장군(鄭地 1347~1391)을 모신 사우로서 제4수원지 아래쪽에 펼쳐지는 협곡에 자리한 분토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12



 **면양정** | 도기념물 제6호

조선 중종 28년(1533년)에 국문학사에 빼어난 족적을 남긴 면양정 송순(宋純:1493~1583)이 건립한 면양정(免仰亭)은 이황(李滉:1501~1570)을 비롯하여 김인후, 양산보, 임제, 박순, 고경명, 임덕령, 기대승 등 많은 사람들과 학문을 논하며 후학을 길러내던 곳으로서, 강호가사인 면양정가(免仰亭歌)를 지은 곳으로 유명하다.

13



 **담양송강정** | 도기념물 제1호

조선 선조 17년(1584년) 송강 정철이 대사헌을 지내다 당쟁으로 물러난 후 낙향하여 정자를 짓고 죽록정(竹綠亭)이라 명 하였는데, 후에 정철의 후손들이 증건하면서 송강정(松江亭)이라 개명하여 불렀다. 송강은 연군지정(戀君之情)을 읊은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을 비롯한 뛰어난 가사와 단가들을 남겨 가사문학에 뛰어난 족적을 남겼다.

14



 **담양명옥헌원림** | 명승 제58호

명옥헌은 지금은 수량이 적어 실감은 안 나지만 예전에는 물 흐르는 소리가 옥에 부딪치는 소리 같았다 하여 유래되었다. 명옥헌(鳴玉軒) 정원은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에 오명정(1619~1655)이 그의 아버지 오희도(吳希道 1584~1654)가 살던 터에 지은 정자로 산기슭을 타고 내려는 계류를 이용한 위 연못과 아래 연못 그리고 아래 연못을 바라 볼 수 있도록 북서향으로 앉은 정자로 이루어져 있다.

15



 **담양식영정일원** | 명승 제57호

“그림자도 쉬어 가는 곳, 그림자도 쉬고 있다”는 뜻의 식영정(息影亭)은 명종 15년(1560)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成遠 1525~1597)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을 위해 지은 정자이다. 임억령은 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주제로 식영정이십영(息影亭二十詠)과 서하당팔영(棲霞堂八詠)을 비롯하여 수백 수의 시를 지었으며, 식영정 이십영에 대해서 송순은 화답시를 지었으며 고경명, 김성원, 정철은 차운시를 남겼다. 송강 정철은 이것을 밑바탕으로 전원가사의 으뜸인「성산별곡」을 창작하였으며 이곳은 송강가사의 산실이 되었다.

16



 **담양소쇄원** | 명승 제40호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세운 소쇄원은 은사인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 1482~1519)가 기묘사화로 능주로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출세의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숨어 살기 위하여 꾸민 별서정원(別墅庭園)이다. 소쇄(瀟灑)란 맑고 깨끗함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거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후원(後園)이며, 입구에서 전개된 전원(前園)과 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계원(溪園) 그리고 내당인 제월당(霽月堂)을 중심으로 하는 내원(內園)으로 되어 있다.

17



 **독수정원림** | 도기념물 제61호

독수정은 고려 말 조선 초 서은(瑞隱) 전신민(全新民)이 1390년경에 세운 정자이다. 광주호 주변 대부분의 정자들이 16세기 호남 사람의 문화활동의 터전이었던데 비해 독수정(獨守亭)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두문동(杜門洞) 72현과 함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다짐하여 담양군 남면 연천리 산음동의 산기슭에 은거하기 위해서 지은 은둔정자이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가운데에 한 칸짜리 방이 있는 팔작지붕을 한 건물이며, 마을을 등진 채 북향한 것이 특징이다.

18

